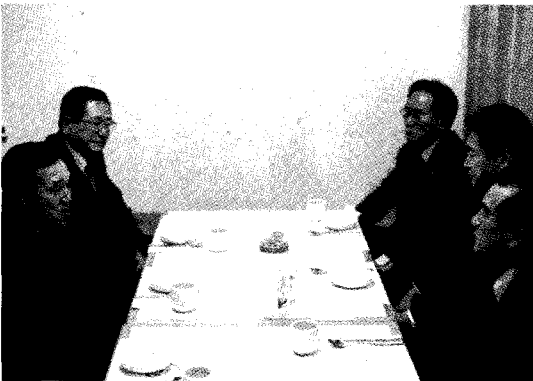


“업계 발전엔 화합이라는 비료가 최고”

- 사슴관련 단체장, 공동 협력 통한 업계 발전 도모 합의 -

본회 김수근 회장, 한국양토양육조합의 한규성 조합장, 한국사슴연합회 강준수 회장, 한국사슴산업연구회 이철수 회장, 전 양육조합 전병설 조합장이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도모를 결의하고 나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4명의 양육관련 전현직 각 단체장들은 지난 2월 6일 서울 용두동 소재 경동골가든에서 모임을 갖고 상호 긴밀한 연대를 통해 양육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하는 한편 이날 모임을 분기별로 정례화, 양육업계 단결과 현안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과거의 양육업계는 다소 분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서로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

육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 밝히며 이날 모임을 환영했다.

연합회 강준수 회장과 연구회 이철수 회장 역시 “각 단체는 본연의 고유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양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 공동 노력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 다짐했다.

2월 20일 한국양토양육조합의 공식 출범식을 앞둔 한규성 조합장은 “두 조합의 합병이 양육업계의 발전에 분명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양측종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전병설 전조합장은 양육조합이 흡수되는 형태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새로운 통합조합에서의 양육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 “한조합장을 도와 양측종의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양토양육조합은 오는 2월 20일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조합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에 있다. **한국양육**